



## 세계속의 우뚝... 자랑스런 충남시대 이룰터

충청남도지사 沈大平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이 그의 저서인 '메가트렌드 아시아(Megatrend Asia)'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힘찬 역동성을 예견했던 21세기의 오늘, 동아시아의 한 지역인 충청남도 역시 역동과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것은 중국을 최단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環황해권의 거점으로서 우리 충남이 새로운 전진의 발걸음을 힘껏 내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우리 道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지역 발전의 好機를 맞았다. 국토의 중심이자 서해안의 요충지로서 각종 산업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아산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며 백제권과 내포권 개발에도 더욱 박차가 가해지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계룡시 승격이 확정되었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의 국책사업인 신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지방분권과 맞물려 충남 대도약의 확실한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대한민국 정

치·행정의 중심', '동북아시아 경제·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 발진을 시작한 이 희망의 엔진에 더욱 힘찬 동력을 가해야 할 때인 것이다. 민선 자치도정 1,2기를 통해 우리는 이미 1等 도민의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왔다. 내부 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 행정은 도정에 대한 200만 도민의 신뢰라는 큰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가꾸어온 과일나무의 열매를 따서 도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내가 쏟은 땀과 정성이 풍요와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선 3기 자치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역점 정책이 바로 '지역경쟁력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과 '참여복지 확대'이다.

첫째,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농업, 관광, 환경 등 도정의 각 분야가 국내외 어느 곳과 경쟁을 하더라도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신바람 속에 돈을 벌 수 있는 곳, 농업인들이 꿈을 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촌, 기대 속에 찾아와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매력 있는 觀光道,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맑고 푸른 고장을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임은 물론이다.

둘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촉진과 주민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창의력 발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道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4일 발표된 지방분권 로드맵(road map)은 우리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 후속 조치가 기대된다. 행정수도를 포함한 중앙의 기능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있는 지방정부로서 충청남도의 역할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대학 육성과 향토인재의 체계적인 발굴·육성을 들 수 있다. 도민 자녀 대학생 가운데 道費를 지원하여 해외유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되는 특성화 학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인성교육원을 통해 떡잎부터 튼튼한 꿈나무를 길러내고 청소년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고장의 인재들이 세계 속의 일꾼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넷째, 참여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사회 생활,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어렵거나 소외된 계층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안정과 도민통합을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다름 아닌 지역민의 화합이다. 그것은 지역과 계층, 그리고 세대와 신분을 망라한 汎道民의 통합을 의미한다. 14년의 숙원을 품 계룡시 승격도 이러한 혼연일체된 의지가 없었다면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거시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성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박수를 쳐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꿈을 꾀왔고 또 그것을 이루어왔다. 온 국민이 앞다투어 와서 살고 싶은 곳, 세계 속에 우뚝한 자랑스런 충남 시대의 꿈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황해의 파도처럼 넘실대는 역동적인 충남, 계룡의 넓은 품처럼 푸르고 넉넉한 충남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일을 누구에게 미룰 수도 없다. 지금 우리는 이 역사적 소명을 온 몸으로 느끼며 세계와 미래 앞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